

## I-8. 좁은 폭경의 치조제에서 임플란트 식립

; Ridge split osteotomy, mini dental implant, lateral guided bone regeneration

김정범, 김태일, 설양조, 이용무, 구 영, 류인철, 정종평, 안수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 연구배경

전치부에서는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치조골의 폭경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경우를 흔히 관찰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ridge split osteotomy(RSO), mini dental implant(MDI), lateral guided bone regeneration(lateral GBR)등의 술식이 사용되고 있다. 각 기술이 적용된 증례와 문헌 고찰을 통해 좁은 폭경의 치조제에서 성공적인 임플란트 기술방법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한다.

### 연구방법 및 재료

1. 상악 좌, 우측 중절치와 측절치가 결손된 좁은 폭경의 치조제에서의 증례로 ridge split osteotomy를 시행한 후 implant를 좌, 우측 측절치부위에 식립한 후 판막을 피개하였다.
2. 하악 좌, 우측중절치와 측절치가 결손된 좁은 폭경의 치조제에서의 증례로 각각의 치아에 해당하는 부위에 Mini dental implant를 4개 식립하였다.
3. 하악 우측 제1, 2대구치가 결손된 좁은 폭경의 치조제에서의 증례로 자가골과 xenograft(Bio-Oss)의 혼합골과 Titanium reinforced e-PTFE membrane을 이용하여 lateral GBR을 시행하였다.

### 연구결과

1. 임플란트 식립 6개월 후 2차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상악 좌, 우측 중절치 부위에 pontic으로 연결된 4 unit bridge로 보철시술하였다.
2. 임플란트 식립 3개월 후 2차수술을 시행하였으며 4 unit splinted crown으로 보철시술하였다.
3. 술 후 2주경 차폐막이 노출되었으나 6주까지 유지 후 막을 제거하였으며, 6개월 후 임플란트 1차수술을 시행하였다.

### 결론

수평적으로 심하게 퇴축된 전치부에서 사용된 위의 술식들은 적절한 증례선택과 진단 및 수술을 통하여, 좁은 폭경의 치조제에서 임플란트 식립시 고려해볼 수 있는 선택으로 판단된다.